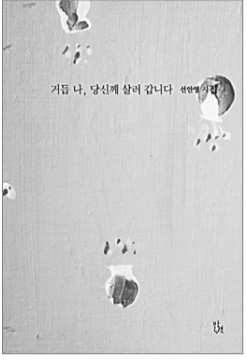


“묵은 어둠 들들 말아서 버린 느낌”

시조집 ‘거듭 나...’ 펴낸 선안영 시인
유장한 시조에 입힌 현대적 이미지
“부친과의 필담, 시인의 길 이끌어”



“짓눌러왔던 어둠을
커다란 두루마리에 말
아서 버린 느낌입니
다.”

예술가들에게 창작은 지난하면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생명을 출산하는 산고(産苦)와 같다고 말하는 건 그 때문이다. 예술 장르 가운데서도 문학은 상상력과 체험으로 이뤄지는 원초적인 분야다. 이번 세 번째 시조집 ‘거듭 나, 당신께 살라 갑니다’ (발간)를 펴낸 보성출판사 선안영 시인. 선 시인은 이번 창작 과정을 ‘어둠을 두루마리에 말아서 버린 것’에 비유했다. 시를 쓰는 고통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기자는 시인의 말이 시적인 표현이라는 생각도 잠시, 시를 쓰도록 강제한 ‘시적 상황’이 궁금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글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었죠... 어릴 때부터 늘 편지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5남매인데 제게 그 역할이 주어졌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글의 힘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 시인은 편지를 쓰면서 문장력이 길러지고 아버지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왜 시인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편지의 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품집에 유독 ‘그늘’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화자의 음성은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다항적(多聲的)인 울림을 준다. “울엄마 뒤결에서 손 놓고 흐느끼길 때/ 자스락 물 떨어져 물 동그라미 그릴 때/ 물랐다/ 웃음으로만 / 씻어지는 이름 한 채// 소금포대가 녹아내린 흰 가슴에 매달려/ 어미의 젖은 숨에 어린 숨을 들이 밀면/ 지갑 속/ 유방이 흘러 흘러/ 뼈 속까지 가난 하던”(‘그늘의 연(緣) 중에서’) 위에 언급한 ‘그늘의 연(緣)’은 화자로 치환되

는 시인의 정서와 체험이 응축돼 있다. ‘어미의 젖은 숨에 어린 숨을 들이밀’며 성장한 화자에게는 ‘뼈 속까지 가난하단’ 불운한 기억과 생의 비의가 드리워져 있다.

해설을 쓴 유종인 시인은 “파열음의 근저는 바로 ‘가난’과 ‘울음’의 기초에서 출발한다. 그림으로 치자면 가난은 바탕이고 배경이며 울음은 그 바탕과 환경을 확인하고 견디는 내면의 방식으로서의 붓질인 셈이다”고 평한다.

유 시인의 평이 아니라도 선안영 시인의 시조는 다항적이며 다성적인 아우라를 발한다. 파도처럼 넘나드는 울격, 유장하고 유려한 사실시조의 느낌이 묻어난다. 현대 모더니즘의 이미지를 시조에 덧입힌 덕분에 작품이 세련되면서도 깊이가 있다. 시인의 성정이나 기질이 시조라는 형식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 시인에게도 예는 문인들처럼 오랜 습작 시절이 있었다. 문학소녀였던 중고교 시절을 지나 조선대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이후로는 문학 동아리 ‘나락’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 교사보다는 일반 직장인의 길을 선택했다.

“LG가전 홍보부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후 삼성건설로 이직해 분양사업부에서 아파트 분양 관련 업무를 봤어요. 그러다 아이들 눈물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동아리 선배나 문학활동을 하는 지인들의 등단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안에서 꿈틀대는 글에 대한 열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녀는 절치부심 마침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과 이후 중앙시조대상 신인상을 거머쥐게 된다.

큰 상을 받고 나면서 선 시인의 이름은 중앙 문단에까지 알려진다. 시조 전문문예지에서 수차례 특집으로 다룬 바 있고, 2016년에는 유망작가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제6회 발견작품상(500만원)에 선정돼 다시 한 번 시단에 그녀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고재중 시인은 “남도 시단에서 선 시인은 의미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향후 작품활동이 기대되는 시인”이라고 상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디어아트 플랫폼’ 올해 4만6000명 다녀갔다

개관 2년 차인 미디어아트 플랫폼(사진)이 미디어아트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홀로그램극장, 미디어놀이터 등 6개 특화공간으로 구성된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지난 2016년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문화재단)이 구축, 지난해 3월부터 문화재단이 상설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미디어아트 플랫폼 방문자는 4만 6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료관객만 1만 명 이상이 다녀가 기부금 수익을 포함한 운영 수익은 약 5400만원으로, 미디어338 작가 전시비용과 플랫폼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재투자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

각급 학교를 비롯 다양한 기관의 미디어아트 교육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상반기에 약 117개 기관이 다녀갔고 하반기도 106개 기관에서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타 시도 문화재단과 연수기관 등 24개 기관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다녀가는 등 체험 교육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지역 최초로 운영되는 홀로그램 극장은 인기 그룹 2PM과 GOT7의 ‘K-POP’ 콘텐츠를 상영해 미디어아트 플랫폼 대표 공간이 됐으며 지난해 지역 기업 및 예술단체와 공동제작한 홀로그램 뮤지컬인형극 ‘어린이왕자의 선물’은 유치원 단체와 가족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밖에 8가지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미디어 놀이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현수소를 보여주는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디지털 갤러리도 인기 코스다.

또한 VR체험이 가능한 미디어338에서는 입주 작가들의 전시 그룹전이 연중 개최돼 관람 기회와 작가들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홀로그램, VR 등의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예정이다. 홀로그램 뮤지컬 ‘번개맨과 신비한 우주여행’ 제작에 돌입했으며 미디어놀이터 또한 명화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VR고흐의 방’을 개발 중에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가 무료 워크숍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교과연계 통합예술교육 워크숍’을 진행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사업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 예술가교사, 국내 문화예술교육전문가들과 함께한다. 특히 자유학기제 확대 등으로 창의문화예술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학생참여형 수업 모델 및 자유학기제 수업 연계를 기획·개발하는 중등교원과 예술강사 등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김인설 교수(전남대학교 문화전문

대학원)의 ‘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가’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체험워크숍, 현장답사,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되며, 연수비는 전액무료다. 오는 25일까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gjarte@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5764, 5767. /박성천 기자 skypark@

세계 청소년서예대전 참가작 9월3~8일 접수

(사)학정연우서회(회장 유백준)와 학정서예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제37회 세계 청소년서예대전이 참가작을 모집한다.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서예 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해 전통예술인 서예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서예대전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참여가 이어지는 등 호응이 높다. 19세 미만 청소년(해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오는 9월3일부터 8일까지며 참가비는 없다. 1차와 2차 두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며 당선작은 오는 9월21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메트로갤러리에서 열리며 대상(초·중·고 각 1명)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메트로 갤러리(금남로 4가 지하철역 지하2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2-4155.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시민연극제’ 전국 단체 참여 가능합니다

제4회 광주시민연극제가 ‘연극의 확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오는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빛고을극약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서구(정장 서대석)가 주최하고 광주서구문화원이 주관한다. 매년 8개 아마추어극단이 참가해왔던 시민연극제는 올해부터 광주를 넘어 전국에서 아마추어 극단의 참가신청을 받는다.

또 올해는 지역 시민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 고창의 극단 ‘만정’의 작품 ‘진채선’을 초청극으로 공연할 예정이다.

연극 ‘진채선’은 여류명창 진채선의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스승 신재효에 대한 사랑을 그린



제1회 시민연극제에서 선보인 ‘흥부가 기가 막혀’.

작품이다. 이번 시민연극제에는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말까지 광주서구문화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81-417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